

# 글로벌 일류기업 구현에 도전하는 삼성건설

삼성건설은 지난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시공능력평가에서 지난 해에 이어 1위를 고수한 것이다. 레미안으로 대표되는 아파트 브랜드는 7년 동안 국가고객만족도(NCSI) 아파트부문 1위를 지켜온 데다 국내 건설기업의 대표 자리로 인식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해 국내 건설업계의 지존이 된 셈이다. 삼성건설은 내실위주의 견실한 경영을 통해 선도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시공능력 1위 기업에 걸맞는 최고의 품질, 핵심기술과 핵심역량 강화,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함으로써 리딩컴퍼니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이다. 지난 해 삼성건설은 5조8천억원의 수주고와 4조8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3조원의 수주물량 잔고를 갖고 있어 향후 5년 동안의 안정적인 매출물량을 확보한 셈이다. 주택 시공권 잔고는 12조원. 삼성은 그 동안의 꾸준한 성장을 토대로 올해는 수주 6조, 매출 5조를 목표로 설정했다.

[편집자 주]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건강·친환경·첨단 미래주택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레미안 아파트〉

## 글로벌 일류기업 구현, 창의와 도전, 투명성이 경영목표

삼성건설은 △글로벌 일류기업 구현 △창의와 도전 △투명성을 올해의 경영 방침으로 세웠다.

국내 건설업계의 리더 컴퍼니에서 이제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신뢰 받는 건설회사로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삼성건설은 그 동안 정도경영, 상생 경영, 나눔경영 등의 실천으로 업계의 모범이 되었다.

## 삼성건설의 주력사업 전략

### △ 건축사업

삼성건설은 지난 '04년 12월 세계 최고층 빌딩인 버즈두바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으로 건설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중동지역 등 성장시장 수주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고층 분야에 대한 경쟁력은 삼성의 자부심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지상 160층) 버즈두바이를 수주하게 된 배경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타워 팰리스 등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외 초고층(50층 이상) 프로젝트 7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가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아메드상무, 이치노헤 고문 등 초고층 구조설계분야 핵심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온 결과이다.

삼성이 2008년 두바이 신도시 중심부에 버즈두바이가 완공되면 대만 TFC 101 빌딩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에 이어 세계 최고의 3대 마천루를 건

## |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축기전팀장 이영주 상무 |



### ▲ 협력업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최근 최첨단 지능형 건축물의 확산에 따라 IT 분야 기술이 적용되는 쾌

적한 주거 및 근무환경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현장시공 기술수준이 건축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설비분야의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공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시공 ENG' 역량과 시공 전·후 단계의 설계 검토능력 배양 및 시공, 통합 시운전기술 등 기술경쟁력 확보는 물론, 현장의 품질, 안전, 환경, 시공, 원가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 대한설비건설협회에 바라는 말씀은?

저희 회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신기술 및 신공법을 통해 고객만족과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수준에 맞는 친환경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Needs를 선도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신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학계와 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핵심요소 기술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설업계와 설비건설업계 모두 고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은 전국 23개 대학과 연계해 기술 확보를 진행하는 등 산학협력에도 적극적입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도 여타 건설관련 분야보다 산·학 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설비건설업계 발전이 기대됩니다. 그간 산학협동체제 수립에 가교 역할을 하여준 협회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계와 업계의 발전적인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 향후 건축기전팀 설비부문을 이끌어 갈 계획은

반도체공장, 초고층, 문화, 의료시설의 프로젝트 확충 및 대형 프로젝트의 등장으로 기전시장 환경의 지속적인 성장과 매출비율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건물 기능의 첨단화, 지능화 및 환경, 에너지, 바이오 등 관련 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기전분야 소프트 기술력과 통합시설 관리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기술 역량확보를 통한 기전 기술력 향상을 목표로 「인력 육성」, 「전문기술역량 강화」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ENG, 능력을 보유한 기술Network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취약한 핵심요소 기술부문 강화 및 기전분야 우수·시공 인력 확보로 기전 기술력 및 하이테크, 초고층 등 핵심상품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6시그마 기법의 확산적용 및 공사관리의 선진화, 신공법 및 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소프트 경쟁력 확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조직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 삼성물산 건설부문 주택기전팀장 조 옥 희 상무 |

# 래미안 U 플랜

래미안 아파트가 1999년 '사이버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업계 최초의 아파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며, 우리나라 아파트의 정보통신분야를 선도하기 시작한 이후 래미안은 해마다 무선인터넷, 인텔리전트, 홈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아파트 등 국내 정보통신의 아무도 가지 않은 미개척분야의 길을 먼저 걸어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래미안 스타일 발표회를 통해 "U-Plan"을 발표하였습니다.

U-Plan은 U-Tech의 정보통신 IT분야 뿐만 아니라 U-Design, U-Quality, U-Service라는 주택 고유의 건축적인 요소들을 융합시킨 HT(Housing Technology) 분야까지 4가지 주제를 가지는, 새로운 개념의 유비쿼터스 아파트 달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U-Tech분야는 벌써 99년 국내 최초로 Broad Band(초고속인터넷) 사이버아파트를 탄생 시켰으며 FTTH사업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서비스의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국내 최초로 인텔리전트 아파트를 발표하며 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홈네트워크 아파트를 선포하였고, 최근에는 새로운 개념의 멀티미디어를 강화한 Medi@Live(미디어라이브)라는 유비쿼터스 신상품을 출시했습니다.

U-Plan은 이런 정보통신 IT분야 뿐만 아니라, 주택 산업의 고유 기술인 HT(Housing Technology)분야까지 복합적으로 구성한 계획으로 유비쿼터스 관련 시스템들과 인간의 생활 양식이 가장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

자인 요소인 U-Design과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진화형 설비, 구조가 적용되는 생활환경 건축인

프라 요소인 U-Quality, 그리고 개별 기술과 시스템, 콘텐츠 등을 융·복합시키는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서비스인 U-Service 등 HT기술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언제 어디서나 무엇으로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생활문화를 누리는 소프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저희 래미안은 이런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일원동 래미안 갤러리에 "U-Style"관이라는 3번째 미래 주택을 오픈하고 우리 회사의 미래계획을 담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을 운영하는 동안 관람고객들의 의견과 기술구현을 통해 얻어진 상품 아이디어를 통해 정보통신과 더불어 건강·환기시스템, 더 나아가 건축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검토와 개발을 시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을 바탕으로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다양한 생활문화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하는 래미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설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게 된다.

## △ 주택사업

주택사업은 마케팅·디자인·상품 개발·품질·서비스 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다.

삼성은 '96년 한국형 아파트, '99년 사이버아파트, '01년 인텔리전트 아파트, '03년 건강 아파트를 도입하여 국내 주거문화를 선도해 왔으며 '04년에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아파트를 선보였고 '05년에는 강남구 일원동 주택문화관에 U-Style관 건립과 신상품 발표를 통해 미래 첨단주택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도 삼성건설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건강·친환경·첨단 미래주택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래미안 고유의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강력한 Identity 전략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주거성능, 품질 혁신을 통해 최고의 제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05년부터 도입, 시행 중인 주거생활 서비스 브랜드인 '헤스티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입주년차별 입주고객에 대한 헬스, 조경, 클리닝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이다.

주택사업은 도급사업인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삼성의 기술에 의한 차별화가 가능하고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자체·지주공동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적으로도 서울/수도권 중심에서



〈삼성건설은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두바이를 수주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마천루 건설업체라는 자부심을 가졌다.〉

광역시 등 지방 거점도시로 점차 확대하고 행정도시, 기업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해에는 서울 및 수도권 외의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12,307세대를 공급하였고 올해에는 서울·수도권에 약 10,500세대, 대구 등 지방에 약 3,500세대 등 총 14,000여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 플랜트사업

기 수주한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정밀 시공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실현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발전·에너지 EPC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주할 계획이다.

△ 해외사업

삼성건설의 올해 해외수주 목표는 6억불이다.

해외사업은 건설수주의 전제 하에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동, 아시아 등 성장지역 진출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핵심상품을

중심으로 수주를 적극 추진하고 현지 우수인력 확보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안전환경 품질을 선도하는 기업

삼성건설이 다른 건설회사에 비해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가 안전환경 품질에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관한 어떤 회사보다 심혈을 기울여 왔던게 사실이다. 올해 삼성은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중대재해 근절 △삼성 OHSMS(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정착 △제3자에 의한 재해예방 등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표준화를 위한 추진조직 운영으로 업무표준과 기술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표준화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파하고 있다.

환경부분 역시 삼성의 역점사업인테△환경관리계획서 사전검토 강화 △환경관리자 부임 전 교육 철저 △도장작업 비산먼지 중점관리 △환경 시설물 제작기준 준수 △공종별 환경관리 계획서 작성 및 협력사 지도 강화 등을 환경업무 관리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첨단 기술개발로 미래를 주도

삼성건설은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여 핵심기술별 전문 경험인력과 필요기술을 확보하고 사내 기술표준체계와 프로세스 혁신 등과도 연계하고 있다.



(UAE-DCS 기계실)

삼성엔 특화기술 개발과 산학협력 분야의 구체적 성과들이 많다.

**△ 특화기술개발 부분**

- 첨단소재를 활용한 실용화 기술개발
- 자동화/로봇화 시공기술 개발(국내 유일의 건설장비연구소 운영)

**△ 첨단소재 분야**

- 120MPa고강도, 조기강도 발현, 향균 콘크리트 등 다양한 고성능 콘크리트 개발 완료
- 세계적 수준의 150MPa 초강도 콘크리트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 중(올해 말 까지 완료 예정)

**■ 앞으로의 삼성건설 로드맵**

5년, 10년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상품 측면에서는 에

너지 시설, 리모델링 사업, 임대사업을 미래의 주종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시설은 엔지니어링, 구매조달, 시공 등 건설 전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EPC 역량을 구축하고 해외 우수 선진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중대형 평형대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초기 시장선점을 위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 역시 중대형 고급 임대시장을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삼성건설은 그동안 단순 시공도급 형태에서 벗어나 설계,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량 등 소프트 기술을 활용해 기업도시, 도심재개발, 복합개발 등 기획제안형, 고부가가치형 사업 분야를 확대키로 했다.

**■ 삼성건설 기술조직 및 기술개발 현황**

삼성건설은 지난 2003년부터 '기술력 향상 방안'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기반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력 향상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2단계로 'Management 역량' 강화를 '05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핵심인력 확보와 육성은 삼성건설 기술부문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제이다.

삼성건설의 기술조직은 전사적으로 핵심기술과 전문기술인력의 확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기술본부(기술연구소 포함)'와 현업의 기술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하는 4개 사업본부 '기술팀'의 연계체제로 구성되었다.

2002년에 신설된 T.A팀(Technical

Advisory Team)은 기술분야별 사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전 현장을 공사 프로세스 단계별로 순회하며 발생 가능한 기술 Risk의 사전발굴 및 제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 ■ 4대 핵심상품 선정

기술기획 파트에서는 4대 핵심상품을 선정하여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력 집중하고 있다.

### △ 공조분야

부하 저감기술(외피부하, 고조차 외기활용)과 대온도차, 저온 급기시스템 적용기술

### △ 소방분야

PBD 즉 성능위주소방설계에 의한 시공 및 초고층 제연시스템 기술 및 피난 기술

### △ IBS분야

정보통신분야 무선통신시스템 설계 기술 및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도입을 통한 IBS 적용기술 확보

### △ 소음/진동, 음향분야

기계, 전기 장비 소음 저감 및 방진기술 미 소음/진동 제어 기술

## ■ 기술개발 추진 동향

- ① 공조장비 성능진단 및 성능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 개발
- ② EMI, EMC 제어기술
- ③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실내환경 통합제어기술 개발
- ④ 신재생 에너지(태양열, 지열, 태양광, 풍력)

⑤ 무대공연설비 건축/전기음향 요소 기술

⑥ 초고층 빌딩 제연 시스템 기술 개발

## ■ 추진 중인 시뮬레이션 분야

### △ 공조분야 : 공조 시뮬레이션 기술

공조설비에 의한 건축물 냉난방, 건축물 Stack Effect 등 실내기류 및 온도 분포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 적합성 검증 및 대안 제시

### △ 소방분야 : 피난 시뮬레이션 기술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피난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법적 피난시설의 적합성을 검증 기술

### △ IBS분야 : 무선통신 시뮬레이션 기술

건축물에 사용되는 무선LAN, 핸드폰, 기타 무선통신 장비의 설치계획 및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설계 방안 및 대안 마련

### △ 소음/진동, 음향분야 : 소음/진동, 음향 시뮬레이션 기술

건축물의 전기음향(대공간 스피커 등 음향시스템)과 건축음향의 파동 해석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계적합성과 최적설계 방안 마련 기술

## ■ 래미안 아파트에 국내 최초 지열 시스템 도입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는 07년 입주 예정인 대구 달성 래미안 아파트 현장에서 건설사로는 최초로 커뮤니티 시설(헬스장)에 지열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술 설명회를 지난 4월 6일 개최했다.

지열시스템의 도입은 국내 아파트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대체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친환경성과 관리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향후 래미안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번 지열시스템 적용을 통해 향후에도 분양 예정인 단지를 대상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꾸준한 기술개발과 향후 래미안 아파트 적용을 통해 소비자의 Needs를 충족하는 등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리더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협력관계

### △ 성건회 구성으로 정도경영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삼성건설은 등록협력회사협의회(성건회)를 구성하여 회원사간에 공존공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등록된 협력회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회원사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성건회는 정도경영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모사와 회원사 간의 공동 기술개발 추진 및 정보교환, 품질, 안전, 환경, 시공, 원가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반활동, 모사와 회원사 또는 회원사 간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건설은 협력회사와의 업무공유 시스템 내 관련자료 제공 및 공유(작업 지침 991건 및 기술표준 자료 공개)하고, 6시그마 경영기법의 협력회사 도입

### ■ 래미안 아파트에 적용된 환기시스템

구분	개요	장치구성
외기도입 시스템	- 천정 내부공간 5cm 이내에 덕트를 통해 거실과 안방에 외기를 공급하는 시스템	- 프리 또는 카본 필터
진공청소 복합급기 시스템	- 바닥(기포CON'C) 및 벽체 매립배관을 통해 외기를 공급하는 시스템 - 바닥열을 이용하여 외기 온도 보상	- 진공청소 경용 타입 - 프리필터 적용
열교환 환기시스템	- 열교환장치와 급·배기 덕트에 의한 각 실별 실내 환기시스템 - 덕트배관을 위한 천정고 필요(250mm이상)	- 프리필터 적요 - 히터 제외덕(급기관 보온 필수)
크린에어 시스템	- 열교환부와 공기청정부로 구성된 급·배기 환기시스템 - 덕트배관을 위한 천정고 필요(250mm이상)	- 프리 및 미들피터 적용 - 열교환부 : 전열교환소자, FAN, 히터 - 공기청정부 : 필터, 가습기
관상형 환기시스템	- 덕트없이 벽체에 설치하며 전열교환 환기 및 청정기능 채용 - 실내 공기질(CO <sub>2</sub> , TVOC센서) 상태에 따라 자동운전 기능	- 프리필터 및 중성능 필터 (HEPA, VOCS, HCHO) 적용

및 수행 지도(04년 : 6개사 6개 과제 수행, 05년 11개사 26개 과제 수행), 삼성건설 기술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 시공법 개선 등 공동 작업 수행, 시공표준화 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하여 수행중인 시공단계를 표준화함으로써 시공품질 향상 및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협력회사 등록분과별 분과지를 발간, 배포함으로써 각 사가 보유한 우수 기술자료들을 공유하고 협력회사간 수준 격차 해소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 건설 기능인력 양성 및 기능장제도 운영

삼성건설은 성진직업훈련학교 운영을 통해 신규 건설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 02년 7월 개교한 이래 06

년 2월말 현재 용접, 배관, 타일, 도배, 전기, 건축목공 등 6개 공종에 총 12기 850명을 배출했다.

이는 협력회사와 상호협력으로 기능인력을 자체 양성, 활용하여 원활한 공사수행 및 윈-윈 상생경영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건설인력의 저변확대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자립의지가 있는 젊은층에 일자리 제공, 저소득 생활가장에게 생활기반 확보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04년, '05년 2회에 걸쳐 법무부 갱생공단 보호대상자 81명을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운영하여 용접, 배관, 전기 등 3개 공종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삼성건설이 운영하는 기능장제도는 우수한 현장소장을 확보하고 당사 현장

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기능장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매년 우수기능장 4명을 선발하여 300만원의 포상 및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06년 1월 현재 200명의 기능장을 배출했다.

#### △ 건설업계 최초로 전자입찰제도 도입

삼성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했다.

'05년 시행률 98.8%(총입찰건수 2,278건 중 2,251건 시행)에 이르고 있는 전자입찰제도는 입찰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찰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 물론 업무효율성도 제고(출장비 등 제비용 절감 : 연간 2.7억원)한다.

또한 '05년 3월부터 전자계약을 시행함으로써 인지세 및 계약 부대비용을 절감(연간 예상금액 : 7.3억원)하고 계약업무 기간을 단축시켰으며 인력활용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과 기성실적증명 발급업무 전산화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접수 및 수령을 위한 협력회사의 경비 및 시간을 절감시키고 시스템을 통한 관리로 분류, 검색 등 프로세스의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 △ 하도급사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지원

삼성건설은 하도급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신문고제도/협력회사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신문고 제도는 on/off Line으로 상시 운영하여 협력

회사의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03년 12건을 시작으로 05년 30건 해결)하고 있다.

또한 분기마다 각 사업본부 주관으로 공중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때 협력회사의 주요 고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V.O.C를 청취하여 전사적인 측면에서 개선안 도출 및 실천하고 있다.

이와함께 협력회사의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를 면담(등록사 대상 1회/년)하고 있다.

#### △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

삼성건설은 주력 협력회사(06년 58개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연간 6~8개의 우수협력사에는 계약이행증권 면제, 입찰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연간 물량 예시 범위 내), 삼성건설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또한 각 본부별 준공현장 평가 우수 협력회사를 선정하여 포상과 함께 수의 계약도 부여한다.

#### △ 협력회사 평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회사 평가체계 구축으로 우수업체를 선별하고 평가 결과의 Real Time 공유로 최적의 최적의 외주업체 조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협력회사 평가는 등록 협력회사 및

미등록 실적사에 대하여 현장평가 및 본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협력회사의 평가 실시 후 협력회사별 취득점수는 현장 및 관련부서에 공개하여 협력회사 관리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 협력회사에 자기회사의 평가점수를 통보하여 부진부분에 대한 집중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평가점수는 협력회사 개편시, 우수 협력회사 및 포상협력회사 선정시 활용한다.

협력회사 갱신등록 및 신규등록은 매년 1회 실시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 간이며 신규등록은 매년 하반기 대외 공고후 실시하고 ,등록사 확정은 매년 12월 말에 결정된다.

## ■ 삼성건설 연혁

- |   |                                       |
|---|---------------------------------------|
| 1938. 3 삼성상회 설립                         | 1997. 12 건설부문의 주택·개발사업을 분리, 주택개발부문 신설 |
| 1952. 1 삼성물산(주) 설립(자본금 1억5천만원)          | 1999. 12 주택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
| 1977. 3 삼성종합건설(주) 설립                    | 2002. 2 본사 사옥 분당 이전 및 건설/주택부문 통합      |
| 1982. 6 해외공사 수주 10억불탑 수상                | 2004. 7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1위 달성              |
| 1988. 10 일본 건설업 면허 취득                   | 2004. 7 국가고객만족도(NCSI)-아파트부문 7년 연속 1위  |
| 1991. 2 미국기계학회(ASME)로부터 원자력 시공능력 인증서 취득 | 2004. 12 세계 최고층 “버즈 두바이 타워” 수주        |
| 1994. 7 삼성건설 ISO 9001 인증 취득             | 2005. 2 시화조력발전소 공사 수주                 |
| 1994. 11 환경경영규격인 BS7750 인증 취득           | 2005. 3 래미안 홈서비스 실시(헤스티아)             |
| 1996. 1 삼성물산, 삼성건설 합병(자본금 3,187억원)      | 2005. 7 시공능력평가 1위 2연패                 |
| 1996. 11 제3회 건설대상 수상(한국능률협회)            | 2005. 10 유비쿼터스 주택 체험관 ‘U Style관’ 개관   |
| 1997. 4 울진 원전5호기 공사 수주로 원전사업 첫 진출       | 2005. 12 옥실자재 국제 비교평가회 개최             |